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와는 달리 일본 후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日本은 第2次 世界大戰中에 原子爆彈을 경험하여 핵알레르기라고 하는 핵에너지에 대한 反發이 國民들의 잠재의식에 후유증으로 남아 있는 것과 같이 西獨의 國民들에게는 國家의 積極적인 活動에 대한 알레르기가 남아있다. 이것이 聯邦政府의 活動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보여지는 배경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는 聯邦政府의 原子力開發에 대한 積極적인 자세로의 轉換에 의해서 弘報活動도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기본적인 방침은 핵에너지의 이용을 강요하지 않고 公正·

公平한 입장으로 贊·反 양쪽과 對話를 통해서 일반시민이 이들 雙方의 견해·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에너지를 選擇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電氣事業者들은 牧師와 의사를 弘報活動의 重要 대상으로 하고 있다.

原子力發電所 立地에 따른 특별한 地域振興 對策은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現地 企業의 振興을 助長하고 있다.

例를 들면, Biblis原子力發電所에서 1年間에 發注되는 部品 및 資材 등의 總額은 1億2千萬 마르크가 되는데, 이중에서 100萬마르크가 Bi-blis地域 企業에 發注되어 現在 企業의 振興에 도움을 주고 있다.

商業化 開始以來 처음으로

우라늄 供給, 需要를 下廻

— NEA·IAEA報告 「探查活動 繼續을」 強調 —

1960年代 中半以後 우라늄의 供給이 需要를 처음으로 下廻했다. 經濟協力開發機構·原子力機關(OECD·NEA)과 國際原子力機構(IAEA)는 9月3日 「우라늄資源 生産과 需要」라는 題目의 報告書를 公表하였는데, 1985년에 우라늄生産量이 原子爐需要量 以下로 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또 이 報告書는 現在의 生産能力으로 20世紀內의 수요에는 充分히 對應할 수 있을 것이나, 探查에서 生産까지의 리드·타임이 길기 때문에 2000년 이후의 供給을 保證하기 위해서는 探查活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必要하다고 지적했다.

NEA와 IAEA에 의한 報告는 WOCA諸國

(中央計劃經濟圈 以外的 國家) 50個國에 대한 우라늄狀況을 자세하게 記述한 것으로서 2년마다 發行되고 있는 “Red Book”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르면 우라늄業界는 60年代 中半의 商業化開始이후 항상 原子爐需要를 넘는 水準으로 生産을 해왔으며, 이 過剩生産에 의한 在庫는 現在 需要의 3~4年間分이며, 1980年代에 들어와서 生産이 減少傾向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具體적으로는 1980년에 그때까지의 最高年産인 4萬4千톤을 기록한 것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여 1983년에는 3萬7千톤으로 떨어졌다. 1984년에는 일시적으로 3萬9千톤까지 회복되

있으나, 需要에 대한 余裕에서 보면 1983년에 4千톤이었던 것이 1984년에는 2千톤으로 축소되었으며, 1985년에는 生産量 3萬 5千톤에 대해 逆으로 需要가 2千톤 上廻하게 되었다.

이 報告書는 앞으로의 需給展望에 대해서 年間우라늄需要는 1985년의 357千톤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5萬 5千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WOCA諸國의 현재 生産能力은 年間 4萬 4千톤이며 이것이 1990年代初에는 4萬 9千톤으로 증가가 가능하고, 또 在庫量으로 충당할 수 있어서 新規의 鑛山開發은 그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2025년까지의 長期展望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原子力發電開發에 대한 豫測이 어려워 2가지 경우를 想定하였다.

2025년의 우라늄需要량은 현재의 輕水爐路綫을 베이스로 한 가장 우라늄消費가 큰 경우엔 年間 10萬 6千톤에서 25萬 8千톤, 또 高速增殖爐(FBR)가 2011년에 導入되어 우라늄의 소비가 가장 적을 경우에 3萬 9千톤에서 12萬 1千톤의 범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原子力發電의 伸長이 클 경우에는 심각한 供給不足의 가능성이 나오게 된다고 指摘을 하고 있다.

이 報告書는 WOCA諸國의 探查活動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우려하고, 특히 美國에서는 1979년부터 1984년의 사이에 探查支出이 95% 감소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프랑스, 西獨, 日本 등은 長期的인 觀點에서 扎实的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세계에너지會議 開幕

各國에서 4千餘名 參加

세계에너지會議 第13回 定期大會가 10月 5日 부터 프랑스 칸느에서 열렸다. 이 會議는 世界 79個國이 加盟, 3년에 한번씩 各國에서 定期大會가 개최되는 것으로써, 이번에는 「Energy Needs와 期待」를 주제로 約 4千名의 各國 에너지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5일의 開會式에 이어 6일부터 10일까지 Technical Session, 圓卓會議, Review Session 등 여러 會晤이 개최되어 에너지 전반에 관하여 論議하였다. 10월 5일의 開會式에는 프랑스의 미테랑대통령이 참석하여 지금은 에너지문제가 한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협력이 불가결함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보와토大會長的의 개막인사에 이어 특별연설을

한 미테랑대통령은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에너지는 인류의 「심장」이며, 지금 에너지는 한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협력이 불가결하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先進國 뿐만 아니라 開發途上國의 에너지문제 해결에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石油價格에 대해서는 供給者와 需要者가 국제적으로 타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危機的인 狀況을 創造함 없이 협력하여 最善의 해결방법을 찾아내자고 하였다.

한편, 체르노빌사고는 원자력의 추진에 있어서 불행한 일이었으나, 原子力의 開發·推進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함께 石油, 石炭, 新에너지에 대해서도 言及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